

나의 삶, 나의 하나님

텔런트 정영숙 집사, 몸에 밴 섬김과 봉사

텔런트 정영숙집사(여의도침례교회)는 50대 중반의 중견 연기자다. 그가 맡은 역은 항상 정이 배어 있다. 서울 가정주부가 되고 옛 대감집 마님이 되도 그만의 삶이 저절로 우러난다. 그래서 연기는 더욱 자연스럽다.

“저의 삶은 하나의 길이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금씩 깨닫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자연스럽게 크신 권능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됐습니다”

모태신앙인인 정씨의 고백이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교회에 다녔고 말씀을 실천하게 됐다. 교회와 신앙을 떠난 자신의 삶은 상상도 할 수 없다. 화려함을 추구하는 TV연기자 생활, 시간이 돈인 생활 속에 사는 직업인이 신앙을 최우선으로 여기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주일성수도 만만한 일이 아니다.

평양북도 선천이 고향인 정씨의 부친은 사업을 하다 정씨가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해 사기를 당했다. 당시 사업을 위해 서울로 막 이사를 한 때문에 정씨에게 어린시절 서울은 가난의 힘든 기억들 뿐이다. 그 때 유일한 위안이 교회였다. 성가대 활동이 좋았고 친구들이 좋았다. 꾀꾀 언 손을 입김으로 녹이며 정씨는 교회를 찾았다.

가족들의 눈치를 받으며 들어간 대학, 4학년이 되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며 혼자 힘으로 공부하던 정씨는 68년 정말 우연한 기회에 대학의 추천을 받아 연기자가 됐다. 빨리 취업해 돈을 벌자는 욕심이었다. 정씨는 가능한 신앙을 지닌 연기자들과 친교를 나누며 자신을 불들었다.

84년 정씨는 동료들과 성경공부를 시작했다. 흔들리는 자신의 의지를 더 강하게 해보자는 뜻이었다. 하지만 자신의 집에서 김밥을 나누며 시작한 성경공부는 엉뚱하게도 정씨 자신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았다. 정씨는 자신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지녔을 뿐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말씀은 살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게 정씨의 혼과 영을 쫓개놓았다. 정씨와 동료들은 더욱 성경 공부에 매달렸다. 유달리 맛있는 김밥 때문에 '김밥모임'으로 유명했던 모임을 통해 자연스런 전도도 이뤄지게 됐다. 안문숙씨가 대표적인 경우다.

김해자씨 등 많게는 40여명까지 모인 정씨 집의 모임은 이후 3년여를 지속하며 신우회의 모태가 됐다. 말씀의 지혜로 눈을 뜬 정씨는 자연스럽게 새벽기도를 하고 섬김의 생활로 신앙을 실천하게 됐다. 생활도 변해갔다.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던 정씨가 이제 오히려 주변을 조심씩 바꿔가기 시작했다. 89년 7월 임동진, 한인수 장로 등과 함께 연기자신우회를 만든 것은 그 변화의 열매였다.

-국민일보-

교회목표	'2001년 교회생활: "QT하는 갈보리 교인"	교회생활지침
하나님만이 살과 교회의 주인	갈보리 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누가 10:37 *자원함 - 섬김과 봉사 *익명성 - 명예
제 3권 4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1년 1월 28일
☎269-8677/021-292-1639, ☒229A Ponsonby Rd. Ponsonby(Samoan Church)		



반딧불이 자연에 있을 때는 불을 비추는 존재지만 빵에 붙으면 더러운 벌레에 불과하다. 사람도 세상에서는 위대해 보일지라도 말씀 앞에선 죄인에 불과하다.

일본 도쿄에 나카무라 유키오라는 한 괴팍하고 약삭빠른 도둑이 있었습니다. 이 도둑은 워낙 행동이 민첩하고 교활해 몇년 동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변장술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에게 한가지 이상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도둑질을 하다가 흠쳐갈만한 물건이 없으면 집에 있는 간장과 된장통을 집어들어 마당에 쏟아부으며 심통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카무라가 한 평범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 경찰은 범인을 체포한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에게서 풍겨나는 역한 간장냄새가 단서였습니다. 내 코가 그를 붙잡았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인간의 선행과 악행과 용모를 눈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의 죄악의 냄새를 모두 맡고 계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인격에서 풍겨나는 독한 간장냄새를 감지하고 계십니다.

History → Herstory 레 20:10 **생각**
 감성주도 : 아민인, 이성숙자. (권중의 감성이 아니라 생각)
 갖지 않았을 때 용리, 나눌 때 풍어진다.
 방정환 이성주도 : 성숙자

주 일 예 배

영광송 Gloria	"Calvary" 1.3절:다같이	다 같이
참회의 기도 Confession Pray		
용서의 선언 Proclaim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인도자
*찬송 Hymn	28장	다 같이
*성서교독 Response Reading	3(시 4)	
*신앙고백 Apostle's Creed	사도신경	
교회소식 Welcome & Announcements		
찬송 Hymn	172장	다 같이
기도 Prayer		김영태 집사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요한 8:1-11 <i>갈 6:26 레 20:10</i>	
주일학교 Sunday School	<i>여인을 통해 너 자신을 돌아오라.</i>	아동부
부부성가대 Couple Choir	<i>이 자기도 돌아오라. 부끄러워하는 자가 참 신앙인이다</i>	부부성가대
설교 Sermon	우리에게 용서받	김성국 목사
찬송 Hymn	185장 (마지막절은일어서서)	다 같이
*헌금기도 Offertory Prayer		인도자
*응답송 Response Song	'좋은신 하나님'	다 같이
*위탁의 말씀		인도자
*축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주일예배 1:30 pm 수요일예배 7:30pm(ST.Stephens) 화요일새벽기도: 6:00

<1월, 2월 예배 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기도	헌금위원	teatime봉사
1/28	노은숙	정희자	변지웅.신선숙	김영길.신경화
2/4	김교섭	조순정	박일영.임혜자	김지은.지찬영
11	박일용	임혜자	김지은.지찬영	박일영.임혜자
18	변지웅	이영권	이경석.한은영	안원희.손길숙
25	송정섭	이선우	안원희.손길숙	이경석.한은영

'2001년 교회표어
"주일에서 매일중심신앙으로"
<실천 1년 성경완독
사항> 매일 QT(Quiet Time) 생활화

*3주간 예배, 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자격이 주어집니다
*자유로운 등록결정 판단을 위해
3주간 등록권유를 하지 않습니다.

교 회 소 식

- 성경완독 1년
*그 동안 완독하신 성경완독표는 봉헌함에 넣어주십시오.
*지난주:
2. 2001년 교회목표 "주일중심에서 매일중심의 신앙"-'경건의 시간' 생활화
*실천사항:<매일> "7분 경건의시간-기도.성경.찬송"
3. 다음주일: "입당주일예배"
*다음주일부터 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예배처소를 내어준 사모안교회에 감사드립니다.
*일시: 다음주일(2월 4일) 저녁 6:30
*초청: 전도대상자
4. 새 예배당 입당을 위한 금식기도 2주차
*새 예배당 입당이 은혜가운데 진행되도록 금식기도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금식기도 참가표에 기록- 정희자 (종보기도부장)에게 알려주십시오)
*기간: 1월 22일- 2월 3일(2주간)
5. 청년부 수련회: 은혜가운데 마쳤습니다.
6. 개교회 "연합제직세미나": 갈보리.샘이깊은교회.임마누엘.제일.주님의교회
*일자: 2월 16-17일. 저녁 7:30
*강사: 김태범 목사(대구삼덕교회)
7. 봉헌: 교회용 그릇을 무명으로 봉헌하셨습니다.
8. 교우소식:
*퇴원: 이영권 집사. 건강을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이상욱(청년): 학업과 직장을 위해 한국행(2월 2일)-하나님의 승리로운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합니다.
9. 2월의 교회력과 모임

	교회력	모임 및 행사
4일	입당예배	제1약속의 아비(9일)
11일	성찬식	믿음의 어머니 기도회(16일) *기초성경공부(4기)-13일(화)
18일		제2약속의 아비(23일) *성숙자반(은사론)-22일(목)
25일	사순절시작(28)	

구피르니크리스: 자신이 비서를 썼다 강도등 공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